깃코인(Gitco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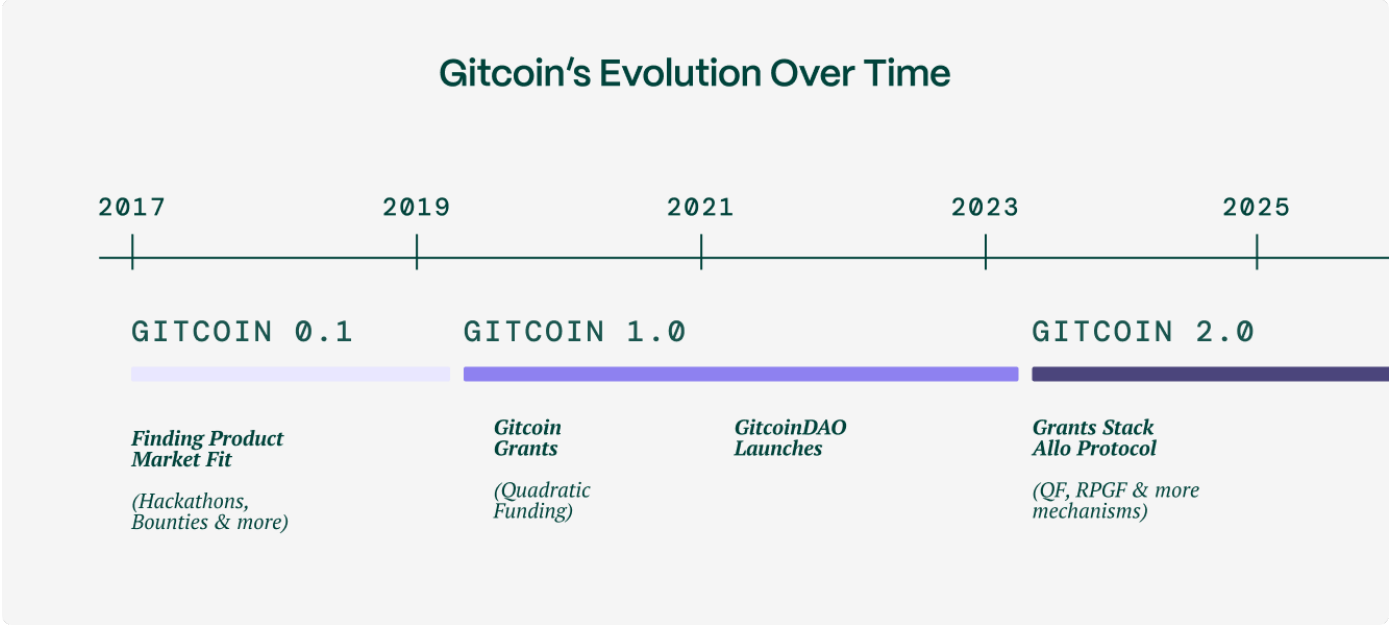
> *해당 번역본은 이용자가 디지털자산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 *단순 참고용으로 번역된 것이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습득을 위해서는*
> *원문을 참고하시거나 원문 작성 주체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두나무는 해당 번역본 내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고,*
>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 *투자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초록 (Abstract)

이더리움 생태계의 핵심 리더 중 하나인 **Gitcoin**은 **Gitcoin Grants 프로그램**을 통해 **퍼블릭 굿즈(Public Goods)**를 지원하는 선구적 역할로 두드러진다. 2019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이더리움 생태계를 풍요롭게 하는 공공재 프로젝트에 **5,9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전달했다. 특히 Gitcoin은 획기적인 **쿼드러틱 펀딩(Quadratic Funding, QF)** 모델을 선도했으며, 이를 통해 Gitcoin Grants는 지금까지 웹3(Web3)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QF 기반 기금 조성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

Gitcoin은 다른 기술 스타트업들처럼 다양한 제품과 모델을 실험했다. 초기에는 **기술 액셀러레이터(Tech Accelerator)**, **해커톤(Hackathon) 개최**, **버그 바운티 및 보상 플랫폼(Bounty Platform)** 등을 시도했다. 그러나 2019년, **퍼블릭 굿즈를 위한 쿼드러틱 펀딩(Quadratic Funding for Public Goods)** 모델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Gitcoin의 첫 번째 성장 단계인 **"Gitcoin 1.0"**으로 정의한다. 이 시기 Gitcoin은 점차 생태계 내 영향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아직 **Grants 모델의 잠재력과 규모**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단계였다.

Gitcoin 1.0은 이더리움 생태계의 주요 인물과 프로젝트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이더리움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을 비롯해, **WalletConnect**, **Uniswap**, **Yearn**, **1inch Exchange** 같은 주요 프로토콜들이 Gitcoin Grants를 활용했다. 또한 Gitcoin은 여러 유명한 생태계 기여자들에게 **초기 자금 지원(Seed Funding)**과 **검증(Validation)**의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David Hoffman (Bankless)**, **Austin Griffith (Build Guild)**, **Anish Agnihotri (Ritual)**, **Carl Cervone (OSObserver)** 등이 Gitcoin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 외에도 다수의 웹3 혁신가들이 Gitcoin을 통해 성장했다.



Gitcoin은 최근 **1.0에서 2.0으로의 전환(Transformation)**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변화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확장(Layer 2 네트워크의 등장)**, **오픈소스 개발의 성장(Open-Source Development Growth)**, **그랜트 프로그램의 채택 확대(Increasing Adoption of Grant Programs)** 등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었다.

Gitcoin의 이번 변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방향으로 요약된다.

- **중앙화 플랫폼에서 탈중앙화된 프로토콜 제품군으로의 전환:** 기존의 Gitcoin이 직접 운영하던 중앙 집중형 플랫폼에서 벗어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위에 구축(Build on top)**할 수 있는 **모듈형 프로토콜(Modularized Products and Protocols)**로 재편되었다.
- **단일 펀딩 메커니즘에서 다중 자본 배분 구조로의 전환:** 기존의 **쿼드러틱 펀딩(Quadratic Funding)**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본 배분 메커니즘(Capital Allocation Mechanisms)**을 도입했다.
  → 예: **쿼드러틱 펀딩(QF)**, **직접 보조금(Direct Grants)**, **레트로액티브 퍼블릭 굿즈 펀딩(Retroactive Public Goods Funding)** 등.
- **이더리움 단일 네트워크에서 멀티체인 확장으로의 전환:** Gitcoin은 더 이상 이더리움 메인넷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EVM 호환 네트워크(EVM-Based Networks)**에 배포되었다.
  → 예: **Optimism**, **Arbitrum**, **Base**, **Polygon**, **zkSync**, **Scroll**, **Avalanche** 등.

Gitcoin 2.0은 이 백서에서 자세히 다루는 바와 같이, **퍼블릭 굿즈 자금 조달(Public Goods Funding)**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인프라(Key Infrastructure)**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혁신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사회적 진보(Social Progress)**를 상징하는 전환점이다. Gitcoin은 웹3 및 온체인 시대(Onchain Era)에서 **공공재 자금 조달(Public Goods Funding)**을 포함한 **자본 배분(Capital Allocation)**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전념하고 있다.

Gitcoin 2.0

2024년 1월 기준, **Gitcoin**은 **쿼드러틱 펀딩(Quadratic Funding, QF)** 기반의 그랜트 프로그램을 총 **19라운드** 운영했으며, 지금까지 **5,900만 달러 이상($59M)**을 초기 단계 빌더 및 다양한 수혜자에게 배분했다. Gitcoin의 초기 그랜트 수혜자 중 일부(예: **Uniswap**, **Optimism**, **Bankless**)는 이제 자체적으로 펀딩을 주도하며, 독립적인 **그랜트 라운드 운영자(Grant Program Operators)**로 성장했다.

Gitcoin의 브랜드 인지도와 영향력은 웹3(Web3) 생태계 전반에서 크게 성장하여, 현재는 **가장 잘 알려진 퍼블릭 굿즈(공공재) 지원 기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Gitcoin은 **Coinbase**, **Ethereum Foundation**과 같은 **크립토 네이티브 조직**, 그리고 **UNICEF**, **American Cancer Society** 같은 **비(非)크립토 기관**들과도 파트너십을 맺어 그 범위를 확장했다.

지난 19라운드를 거치며, 우리는 **자본 배분(Capital Allocation)**이 실제로 작동할 때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는지를 목격했다. 생태계 내에서 효과적으로 자금을 배분해 투자할 수 있는 조직은 **빌더 활동성(Builder Activity)**, **사용자 유입(User Onboarding)**, **트랜잭션 규모(Transaction Volume)** 모두에서 뚜렷한 성장을 보였다. 요약하자면, **그랜트(Grants)는 성장을 만든다.**

자본 배분(Capital Allocation)은 본질적으로 간단한 개념이다. 즉, "자금과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위"이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본을 배분한다 — 청구서를 지불하거나, 세금을 납부하거나, 친구에게 식사비를 송금할 때 말이다. 하지만 정부나 재단 같은 기관의 경우, 자본 배분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풀타임 업무(Full-Time Operation)**에 가깝다. 이들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프로세스 설계, 운영 로지스틱스,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규모가 커질수록 **폐쇄성(Gatekeeping)**, **경쟁적 의사결정(Rivalrous Decision-Making)**, **투명성과 책임성 부족(Lack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이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해법을 제시한다. **프로그래머블 스마트 컨트랙트(Programmable Smart Contracts)**를 활용하면, 자본을 **효율적(Efficient)**이고 **투명(Transparent)**하며 **검증 가능한(Verifiable)** 방식으로 배분할 수 있다. Gitcoin은 이 기술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랜트 프로그램 전체를 온체인(On-Chain)**으로 이전했다 — **거버넌스(Governance)**, **생성(Creation)**, **관리(Management)**, **배분(Disbursement)**까지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한다.

그랜트 프로그램을 완전히 온체인화하고 오픈소스로 운영함으로써, Gitcoin은 **개발자(Developers)**, **그랜트 운영자(Grant Programs)**, **자본 배분자(Capital Allocators)**로 구성된 웹3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결국 Gitcoin 생태계 전반의 성장과 자본 순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한다.

Gitcoin은 지난 몇 년간 **쿼드러틱 펀딩(QF)**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효과적인 펀딩 메커니즘**을 실험해 왔다. Gitcoin은 이 모델을 통해 **그랜트 시장을 창출(Market Creation)**하고, **연간 수백만 달러 규모(Millions per Year)**로 확장시키는 데 성공했다. 최근에는 **직접 보조금(Direct Grants)**, **레트로액티브 퍼블릭 굿즈 펀딩(Retroactive Public Goods Funding, Retro PGF)** 등 새로운 메커니즘도 활발히 도입되어, 앞으로 이들도 대규모로 확장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서는 **5,900개 이상의 그랜트를 통해 10억 달러($1B)** 이상이 자금으로 배분되었으며, 이 수치는 계속 증가 중이다. Gitcoin과 그 파트너 네트워크는 **그랜트 분야를 넘어 자본 배분(Capital Allocation)**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척하고 있으며, 이 혁신은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게임 체인저(Game-Changer)**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Gitcoin의 궁극적인 목표는 **"10억 달러 규모의 온체인 그랜트 펀딩($1B in Grants)"** 달성이다. 이는 Gitcoin에게 **공격적인 성장 목표(Aggressive Growth Target)**이자,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점(Beginning of What's Possible)**이다.

자본 배분: 다음 성장의 프론티어 (Capital Allocation: The Next Growth Frontier)

자본 배분(Capital Allocation)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는 **정부 지출(Government Spending)**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전통적 자본 배분 시스템의 한계**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하다.

정부는 **세금 징수(Taxation)**를 통해 자금을 모은다 — 모든 개인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이 자금은 **납세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제로는 전통적 자본 배분 방식이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다.

전통적 자본 배분의 주요 한계점

1. **게이트키핑(Gatekeeping):**
   소수의 결정권자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피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든다.
2. **확장성 부족(Not Scalable):**
   인터넷(손쉬운 접근성, 직관적 인터페이스)과 이더리움(중립성, 조합성, 투명성, 민주적 거버넌스, 검열 저항성)의 기본 속성을 활용하지 못한다.
3. **정확성 부족(Not Precise):**
   대규모 데이터를 프로그래밍적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을 정밀하게 배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술이 가져온 새로운 가능성 (The Technological Shift)

지난 30년간의 기술 발전은 기존의 **비효율적인 자본 배분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다.

- **인터넷(Internet)**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규모로 사람과 정보를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창조했다.
- **블록체인(Blockchain)**은 **투명한 원장(Transparent Ledger)**을 통해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불변성(Immutability)**과 **데이터 접근성(Data Availability)**을 기반으로 책임성과 신뢰를 강화했다.

이 두 기술이 결합하면, 우리는 **새로운 자본 배분의 프론티어(New Frontier of Capital Allocation)**를 열 수 있다. 즉, 커뮤니티가 **자신들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Value-Aligned Funding)**에 따라
더 효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고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더리움 기반 자본 배분의 장점 (Advantages of Ethereum-Based Capital Allocation)

1. **민주적(Democratic):**
   온체인(Onchain) 투표 시스템을 손쉽게 생성하고 운영할 수 있어, 참여자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거버넌스가 가능하다.
2. **접근 가능(Accessible):**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누구나 웹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3. **투명(Transparent):**
   블록체인의 핵심 기능인 **변조 불가능한 공개 원장(Public Ledger)**을 활용해, 모든 활동의 감사(Audit Trail)가 누구에게나 공개된다.
4. **강력(Powerful):**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s)를 활용해 대규모 자원을 정밀하게 배분할 수 있다.
5. **진화 가능(Evolutionary):**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Source Software)를 기반으로 누구나 기존 시스템을 **포크(Fork)**하고, 자신들의 요구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해결의 시점 (Now Is the Time to Evolve Capital Allocation)

이제 우리는 자본 배분의 오랜 제약을 해결할 수 있다. 투명하고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채택 장벽(Barriers to Adoption)**을 낮출 수 있으며, 민주적 투표(Democratic Voting)와 접근 가능한 참여 시스템(Accessible Participation)을 통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나아가 **혁신적인 자본 배분 메커니즘(Novel Capital Allocation Methodologies)**을 만들 수 있다.

즉, **Gitcoin 2.0**은 단순히 퍼블릭 굿즈를 위한 펀딩 시스템이 아니라, "**자본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어떤 가치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의하는 플랫폼이다.



오늘날의 Web3에는 수백 개의 **DAO(탈중앙화 자율조직)**가 존재하며, 각 DAO는 자본을 배분해 자사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DAO들은 **아이디어나 API를 실제 제품(Product)과 채택(Adoption)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혁신을 실현하고 있다.

Gitcoin은 **자본 배분(Capital Allocation)**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정의하고 선도할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이는 **퀴드러틱 펀딩(Quadratic Funding)**과 **Web3 그랜트(Grants)**의 성공을 기반으로 한다.
Gitcoin은 그랜트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보다 많은 온체인(On-Chain) 자본 배분 경험을 쌓아왔다. 이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Gitcoin은 지난 2년간 누구나 쉽게 Web3 생태계에서 자본 배분의 새로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 및 제품군(Protocol & Product Suite)**을 설계해왔다.

Gitcoin = Grants = Growth

현재 Web3 자본 배분 도구의 시장은 **토큰 자산을 보유한 조직(Organizations with Token Treasuries)**에 한정되어 있지만, 향후 이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Exponential Growth)**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10년 내에 더 많은 자산이 **온체인(On-Chain)**으로 이동하고, **토큰화(Tokenized)**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금융 자산(Financial Assets, 예: 법정화폐, 투자 상품 등)뿐 아니라, 비금융 자산(Non-Financialized Assets, 예: 부동산, 예술품, 실물 자산 등)까지 포함한다.
이처럼 더 많은 자산이 온체인화될수록, 자본 배분의 활용 사례는 **폭(Breadth)**과 **깊이(Depth)** 모두에서 확장될 것이다 — 즉, 더 간편하고 보편적인 시스템뿐 아니라, 아직 상상되지 않은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메커니즘(Novel Methodologies)**이 등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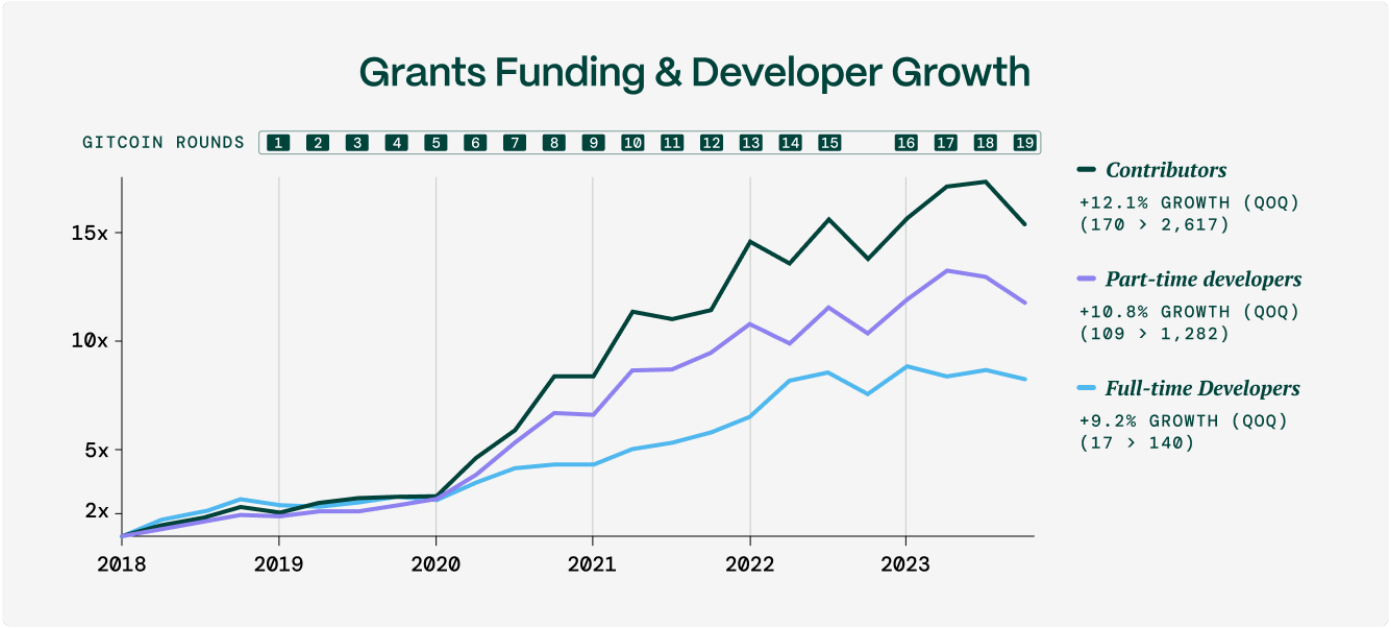
그러나 이더리움이 탄생한 지 11년이 지난 지금도, Web3는 여전히 **성장의 초기 단계(Early Stage)**에 머물러 있다. 현재 Web3 기술은 **신뢰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능(Key Features)**이 여전히 부족하다.
전 세계 인구의 **단 4%만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블록체인의 잠재력과 실제 활용 간에는 여전히 큰 간극(Chasm)이 존재한다.

이러한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의 **인프라(Infrastructure)**와 **앱(Apps)**을 개발해 미래의 사용자를 유입시킬 **빌더(Builders)**와 **개발자(Developers)**를 대규모로 온보딩(Onboarding)해야 한다.
이러한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려면, 기존의 **BD(사업 개발)** 또는 **투자 파이프라인(Investment Pipeline)**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전통적인 Web2식 **폐쇄형 데이터 수집 기반 마케팅(Walled-Garden Marketing)** 또한 **사용자 중심(User-Centric)**이자 **온체인 기반(On-Chain Native)**인 Web3 환경에서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결과적으로, **그랜트(Grants)**는 Web3 성장의 핵심 동력(Core Driver)**으로 부상했다.**
그랜트는 빌더의 온보딩(Onboarding)**과** 리텐션(Retention)**을 동시에 촉진한다.

- **온보딩(Builder Onboarding):**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그랜트는 토큰을 인센티브나 보상으로 분배하여 개발자와 빌더를 생태계에 유입시킨다.
  이 초기 자금은 프로젝트가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지원이 되며, 동시에 **공개적 검증(Visibility & Validation)** 역할도 한다.
  많은 초기 단계의 빌더들이 **기존 VC(벤처캐피탈) 투자 대신 그랜트를 선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랜트는 **VC 자본보다 훨씬 빠르게 지급**되며, **홍보 효과(Publicity)**와 **생태계 내 네트워크 확장(Connections)**이라는 부가적 이점도 제공한다.
  무엇보다, **지분 희석(Equity Dilution)** 없이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크다.
  즉, 그랜트는 **생태계 내부 통화(Native Token)**로 자금을 분배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생태계 전체의 가치가 상승하는 **양(Positive-Sum) 구조**를 만들어낸다.
- **리텐션(Builder Retention):**
  토큰 분배를 통한 양의 합 결과는 빌더 유지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생태계의 모든 조직이 함께 성공을 공유할 수 있으며, 그랜트를 통해 분배된 토큰은 빌더에게 **소유권(Ownership)**과 **거버넌스 권한(Governance Power)**을 부여한다.
  이는 빌더들이 자신의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투자 결정(Policy & Investment Decisions)**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즉, 빌더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생태계의 **공동 설계자(Co-Architect)**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Gitcoin = Grants = Growth**라는 공식은 단순한 수식이 아니라, Web3 시대의 **지속 가능한 혁신과 확장의 원동력**이다. 그랜트는 빌더와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생태계를 성장시키며, Web3의 진정한 탈중앙화 비전을 실현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Grants = Growth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지난 4년간 **Gitcoin Grants 프로그램**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된 결과(Empirically Proven Outcome)**이다.
Gitcoin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프로젝트가 받은 **그랜트 자금 규모**와 **가치 창출 활동(Value-Additive Activity)** 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이후 Gitcoin Grants를 통해 **100만 달러(1M USD)**가 분배될 때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평균적으로 **7명의 전일제(Full-Time) 개발자**가 장기적으로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크라우드펀딩 매칭(Crowdfund Multiplier)**을 반영하면, 매칭 풀에 투입된 100만 달러당 **13명의 전일제 개발자**가 남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벤처캐피탈(VC)** 자금과 비교했을 때 더욱 인상적이다. 약 **760억 달러(76B USD)**의 VC 자금이 투입된 생태계에서는, 100만 달러당 평균 **0.1명의 개발자**만이 유지된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즉, **Gitcoin의 그랜트 모델은 전통 VC 대비 약 70~130배의 효율성을 보여준다.**

그랜트를 넘어 (Beyond Grants)

차세대 자본 배분(Next-Generation Capital Allocation)의 영향력은 Web3를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화가 아니라, **자본이 조직되고, 소비자가 구매력을 행사하며, 자산을 소유하는 사회적 방식(Social Practice)** 자체가 변하는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다.

Gitcoin은 현재 **DAO 및 토큰화된 커뮤니티(Tokenized Communities)**의 자금 지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자산이 점차 **토큰화(Tokenized)**되면서 다양한 산업에서 자본 배분 방식이 재정의될 것이다.

다음은 그 변화가 예상되는 주요 산업 분야들이다.

1. **DAO 생태계 개발 자금 지원 (Funding for DAO Ecosystem Development)**
2. **과학 연구 자금 지원 (Funding for Scientific Research)**
3.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프로젝트 (Funding for Environmental & Social Impact)**

4. **자선 및 공익 활동 (Funding for Philanthropic Initiatives)**
5. **지방정부 개발 프로젝트 (Funding for City, County, and State Development Projects)**
6. **자본 형성 및 경제 성장 (Funding for Capital Formation and Economic Growth)**

이들 산업은 각각 고유한 필요에 따라 **전략적 자금 배분(Strategic Capital Allocation)**, **리더십(Thought Leadership)**, **이해관계자 참여(Constituent Engagement)**, 그리고 **맞춤형 애플리케이션(Customized Applications)**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미 Gitcoin 네트워크는 이러한 산업들에서 다수의 **파일럿 프로젝트(Pilot Projects)**를 수행했다.
그 예로,

- **American Cancer Society(미국 암 협회)**,
- **DeSci(탈중앙화 과학 연구)** 프로젝트,
- **UNICEF**,
- **미국 콜로라도 주 볼더 시(Boulder, Colorado)** 등의 협력 사례가 있다.

각 산업 내에서 자본 배분이 지닌 **변혁적 잠재력(Transformative Potential)**은 아직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지만,
그 영향력은 이메일이 서면 커뮤니케이션을 바꿔놓은 것과 비슷할 것이다.

과거, 사람들은 손편지를 보내던 시절보다 지금 **100배 이상 많은 메시지**를 이메일로 주고받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앞으로의 자본 배분이 지금보다 **100배 이상 많은 거래량(Volume)**과 **더 높은 정밀도 (Higher-Resolution Funding Decisions)**를 가진 새로운 자금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는다.

즉, **Gitcoin 2.0 이후의 세계는 자본이 더 자주, 더 투명하게, 더 정교하게 흐르는 시대**가 될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자본 배분(Capital Allocation)**의 진화는 **스큐어모픽(Skeuomorphic)**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기존의 물리적 형태를 디지털로 확장하는 형태였다.

현금(Physical Cash)은 수표(Checks)로 대체되었고,
이후 신용카드(Credit Cards)로 발전하면서 **가상의 결제(Virtual Payments)** 개념이 도입되었다.
신용카드와 인터넷의 결합은 **고속 금융 시스템(High-Speed Banking)**을 탄생시켰고,
그 위에서 **이커머스(E-Commerce)**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Crowdfunding Platforms)** —
예를 들어 **Patreon**, **Kickstarter**, 그리고 **Gitcoin Grants** —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의 수평선(The Next Horizon)**에 서 있다.
그 모습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Gitcoin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함께 탐색(Discover Together)**해 나갈 것이다.
블록체인(Blockchain) 위에 구축된 새로운 자본 배분 메커니즘은
조직에게는 **더 큰 투명성과 책임성(Transparency & Accountability)**을,
개인에게는 **집단적 소유(Collective Ownership)**를 통한 **더 큰 구매력(Buying Power)**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블록체인의 근본적 특성을 통해 이러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것은 **더 빠르고(Faster)**, **더 민주적이며(More Democratic)**, **더 자생적이고(More Emergent)**,
그리고 과거의 어떤 시스템보다도 **더 강력한(More Powerful)**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우리의 솔루션 (Our Solutions)

아키텍처 (Architecture)

자본 배분의 설계 공간(Design Space)은 매우 광범위하다.
Gitcoin은 그중에서도 **그랜트(Grants)**라는 핵심 사례를 먼저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활용 사례(Use Cases)에 반복적(Reproducible)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듈형 솔루션 스택(Modular Solutions Stack)을 설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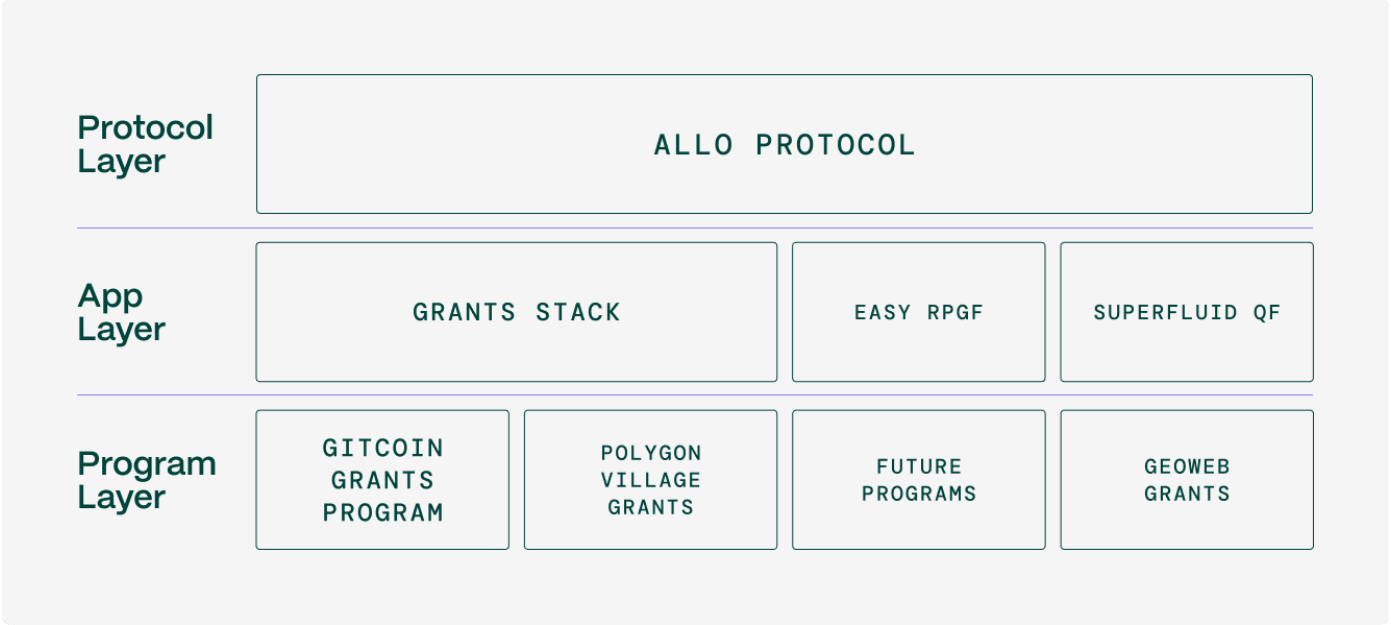
이 스택은 세 가지 주요 계층으로 구성된다.

1. **프로토콜 계층 (Protocol Layer)**
2. **애플리케이션 계층 (Application Layer)**
3. **프로그램 계층 (Program Layer)**

Gitcoin Grants 제공 솔루션 (Gitcoin Grants Offerings)

Gitcoin의 솔루션 스택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자본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 어떻게 배분될 수 있는가를 재정의하는 인프라이다.
프로토콜 계층이 **기술적 기반(Technical Foundation)**을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 계층이 **도구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s & Tools)**를 담당하며,
프로그램 계층은 **실제 운영 및 커뮤니티 실행(Ecosystem Programs)**을 지원한다.

이 구조를 통해 Gitcoin은 **그랜트 프로그램의 완전한 온체인화(On-Chain Governance, Distribution, and Management)**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퍼블릭 굿즈(Public Goods) 펀딩을 넘어 **새로운 자본 배분의 시대(New Era of Capital Allocation)**를 여는 기반이 되고 있다.



첫째, 그리고 가장 확장 가능한 것은 프로토콜 계층이다. 자본 배분 프로토콜(Capital Allocation Protocol, 약칭 Allo Protocol)은 무한히 유연하고 확장 가능하면서도 신뢰성과 정밀성을 갖춘 자본 배분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둘째, 애플리케이션 계층이다. Gitcoin의 Grants Stack은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노코드 플랫폼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보조금 관리자가 Quadratic Funding, Direct Grants, Retro PGF 보조금을 생성·관리·운영할 수 있게 해주며, 대중적 수요가 높은 모든 보조금 메커니즘으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Grants Stack은 오픈 소스 dApp으로, 커뮤니티가 동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포크하여 자체 버전을 만드는 방식으로 경험을 사용자화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계층으로, 이는 스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어 왔고 Gitcoin에 특화된 부분이다. Gitcoin Grants 프로그램은 커뮤니티가 보조금 프로그램의 힘을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온보딩하고 교육하는 강력한 도구다. 현재까지 19번의 펀딩 라운드를 운영했고 이더리움 생태계에 $59M 이상의 자금을 배분했다.

이 백서에서는 프로토콜 계층부터 심도 있게 시작한다. 이후 애플리케이션 계층으로, 다시 프로그램 계층으로 순차적으로 나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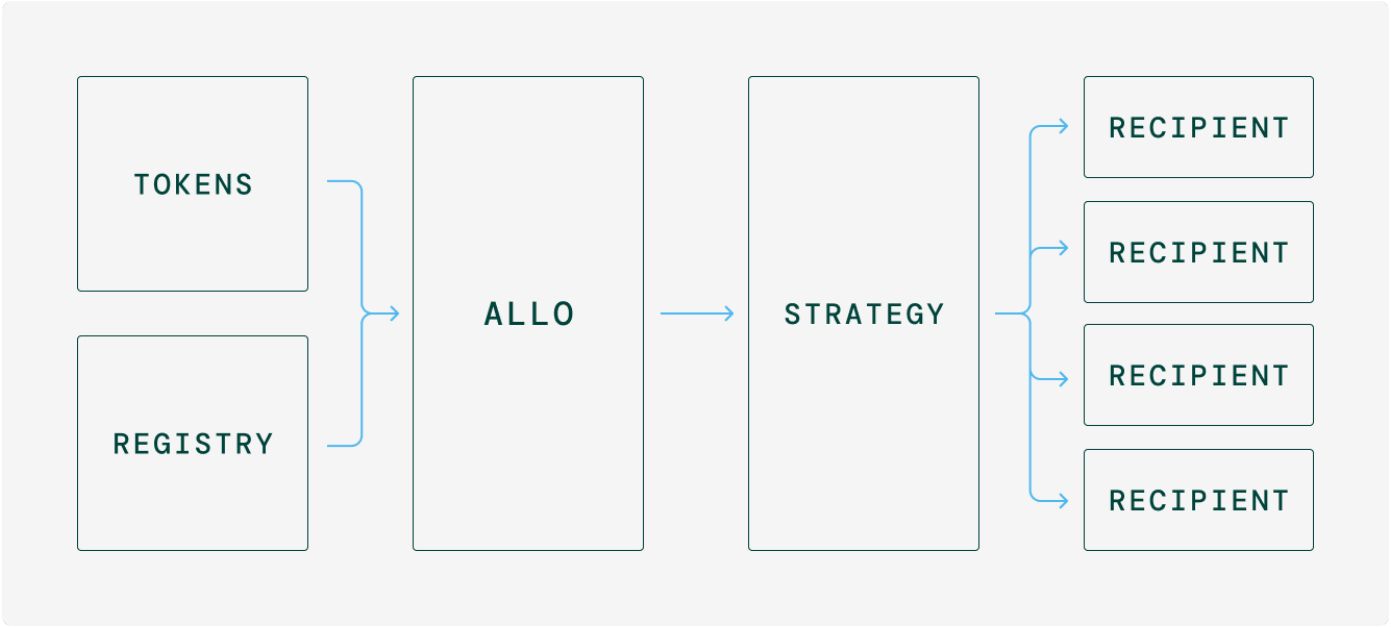
Allo Protocol

Allo Protocol은 이 설계 영역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핵심 초석이다. Allo Protocol은 다양한 사용 사례에 손쉽게 맞춤화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범용적인 아키텍처를 갖추고 있다. 이 프로토콜은 설계에서 폭과 깊이를 모두 포괄한다.

- 폭은 전략 라이브러리에 있으며, 이를 통해 Allo Protocol은 다양한 유형의 자본 배분(우선 QF, RetroPGF, Conviction voting 등)을 지원한다.
- Allo의 깊이는 자본 풀과 그에 대한 권한을 처리하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견고한 코어 프로토콜에 있다. 각 풀은 개발자의 필요에 맞게 사용자화된 특정 전략을 통해 배분된다. Allo의 힘은 대규모로 자본을 정밀하게 배분하여 임팩트를 심화시키는 능력에서 드러난다.

이 프로토콜에는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가 있다:

1. 토큰(Tokens): 자금 제공원이 풀로 전송하는 토큰.
2. 레지스트리(Registry): 토큰 분배 자격이 있는 잠재 참여자들에 대한 구조화된 데이터.
3. 전략(Strategy): 토큰을 수령자에게 어떻게 배분·분배할지를 지정한다.



자금 풀에는 두 가지 입력이 있다. 이 입력은 토큰과 레지스트리이다. 레지스트리는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프로젝트 레지스트리는 프로젝트가 수행하는 일, 그 배후의 인물, 평판, 그리고 그 영향력에 대한 증명(attestation)을 포함하는 데이터 인텔리전스의 핵심 기반이다. 레지스트리 외에도, 풀은 하나의 토큰을 자금 풀에 예치함으로써 자금이 조달된다.

자금은 철저히 감사를 거친(simple and modular) 모듈형 계약 구조의 풀에 보관된다. 전략(Strategy)은 이러한 풀에서 자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제되는지를 결정한다. 전략은 자금이 한 번에 배분될지, 특정 마일스톤에서 분배될지, 일정 기간 동안 스트리밍 방식으로 송금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전략은 자금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 방식을 정의할 수도 있다 — 단일 서명자(single signatory), 투표 위원회(voting council), 또는 Quadratic Funding과 같은 구조일 수 있다.

Allo 아키텍처를 모듈형 방식으로 구축함으로써, 자본 배분의 설계 공간이 진화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자본 배분 방식을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폭넓고 심층적인 자본 배분 전략 저장소를 제공함으로써 Allo 계약이 전 세계 어디서든 자본 배분을 설계할 수 있는 강력하면서도 접근하기 쉬운 도구 세트가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Allo를 자본 배분 기능을 애플리케이션에 구축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리소스이자 손쉬운 통합 수단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통합자(integrator)들은 Gitcoin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자본 배분 설계 공간의 탈중앙 탐색자 및 연구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은 Gitcoin과 인센티브를 정렬시킬 기회를 갖게 되며, Gitcoin의 Citizens Grants 프로그램(물론 Allo 위에서 운영되는)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된다.

Allo를 활용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창조해나갈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설계 공간(design space)에 초점을 맞춘 Rainbowpaper를 참고하기 바란다.

Grants Stack

Allo Protocol 위에 구축된 Grants Stack은 Gitcoin 생태계의 핵심 애플리케이션이다. Grants Stack은 신뢰할 수 있고 엔터프라이즈급의 도구로 설계되어, 보조금 이용자들이 의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오픈 소스이자 포크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Allo Protocol 빌더들에게는 참조용(reference) 애플리케이션의 역할을 한다.

Grants Stack은 모든 보조금 관리자가 손쉽게 보조금 라운드를 생성,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성 높은 도구로 구축되었다. 이는 Gitcoin이 수년간 축적한 성공적인 보조금 라운드 운영 노하우를 제품화한 결과물로, 보조금 설정부터 빌더 프로필 생성 및 신청, 커뮤니티가 기부나 참여를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다. Grants Stack은 보조금 관리자, 빌더, 커뮤니티 간의 복잡한 조정 부담 — 그리고 각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와 프로세스 — 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동화, 투명성, 모듈화를 통해 이를 최대한 원활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완전한 온체인 제품으로서, 자금 배분 결정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기본적으로 갖춘다.

Grants Stack은 성공적인 보조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보조금 관리자에게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핵심 영역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는 보조금 프로그램의 성공이 다음 요소들에 의해 주도된다고 믿는다:

- 커뮤니티를 크라우드펀딩에 참여시키고 보조금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식별하는 것
- 최고의 빌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 보조금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
- 보조금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것

현재 Grants Stack은 다중 자금 조달 방식을 지원한다: Quadratic Funding과 Direct Grants. 또한 새로운 유형의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산업 전반에서 탐색하고 있다. 새로운 자금 조달 메커니즘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이를 효과적으로 제품화(productize)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려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EasyRetroPGF.xyz**이다. 원래 Optimism의 RPGF3에서 사용되었던 이 도구를 우리는 현재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웹3 보조금 커뮤니티 누구나 호스팅하고 운영할 수 있게 했다. Retro PGF의 효용성과 영향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기능을 Grants Stack에 통합하여 보조금 관리자들이 코드 작성 없이 안정적 환경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커뮤니티에 의해 구축될 수많은 실험적 웹앱들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고 도구나 탐색 도구와 같은 보조적 툴링(complimentary tooling)뿐 아니라, Conviction Voting, Allowlist Voting, EasyRetroPGF.xyz 등과 같은 새로운 자본 배분 메커니즘도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조금 생태계 내 혁신의 선순환(flywheel)을 만들어내며, Grants Stack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보조금 혁신의 최전선에 설 수 있도록 한다.

Grants Program

Gitcoin Grants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성장과 채택을 촉진하는 공공재(Public Goods)에 자금을 지원하고, Allo를 통해 보조금 총액(GMV, Gross Merchandise Volume)을 확대함으로써 Gitcoin의 핵심 지표인 North Star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초점을 이더리움 생태계 성장에 두는 것은, 자체적인 실험을 통해 얻은 학습 효과와,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 공공재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결실을 동시에 누리기 위함이다.

웹3와 같이 초기 단계의 산업에서는 트렌드가 등장하고 새로운 개발이 실현되는 속도를 과소평가하기 어렵다. 자본 배분의 실무자로서 Gitcoin은 혁신의 최전선에 머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조금 프로그램과 제품 양쪽 모두에 전문성을 제공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

보조금 프로그램은 또한 Gitcoin에 막대한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온다. 지난 4년간 Gitcoin은 약 4,000개의 개별 보조금(grant)을 지원했다. 현재 Gitcoin은 웹3에서 가장 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빌더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빌더를 영입하려는 파트너나 새로운 보조금 기회를 찾는 빌더 모두에게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작용한다. 또한 보조금 프로그램은 보조금 시장의 '관리자(grant manager)' 측면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많은 수혜자들이 그랜티(grantee)로서의 역할을 마친 후 Gitcoin의 파트너로 전환되어, Grants Stack을 통해 자신들의 라운드를 직접 운영하고 Allo Protocol 위에서 구축을 이어가고 있다.

Conclusion

Gitcoin 1.0에서 Gitcoin 2.0으로의 진화는 자본 배분(capital allocation) 분야, 특히 이더리움 생태계 내 공공재 자금 조달(public goods funding) 영역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다. Gitcoin은 더 탈중앙화되고 모듈화된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며, Quadratic Funding을 넘어선 다양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확장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자본 배분 실천으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로의 확장은 Gitcoin의 영향력을 넓히는 동시에, 웹3 전반에 걸쳐 공공재 자금 조달을 위한 확장 가능하고 유연한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은 Gitcoin이 이더리움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탈중앙화된 세계에서 공공재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받고 지원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프런티어를 탐구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더 나아가 Gitcoin 2.0의 구현은 블록체인 기술이 전통적인 자본 배분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구현한 사례이다. 프로그래머블 머니, 스마트 컨트랙트, 탈중앙 거버넌스의 이점을 활용함으로써 Gitcoin은 자본 배분이 보다 접근 가능하고, 정밀하며, 확장 가능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토큰화(tokenization)가 세상을 재편함에 따라, 자본 배분 도구의 총시장(TAM, Total Addressable Market)은 수십 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Gitcoin이 특히 보조금(grants)을 중심으로 자본 배분의 가능성을 다듬고 확장하려는 노력은, 자금 조달과 자원 분배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웹3 기술의 변혁적 잠재력을 보여준다. Gitcoin이 이 방대한 설계 공간을 계속 탐색하고 발전시켜 나감에 따라, 자본 배분은 단순히 더 효율적이고 투명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봉사하는 커뮤니티의 가치와 필요에 더욱 정렬된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